

時調의 翻譯問題

林 仙 默*

- | | |
|------------|-----------|
| I. 緒 論 | Ⅱ-3. 時調英譯 |
| Ⅱ-1. 時調漢譯 | Ⅱ-4. 時調日譯 |
| Ⅱ-2. 漢詩時調譯 | Ⅲ. 結 語 |

I. 緒 論

存在로서의 國文學으로부터 科學으로서의 國文學 研究로 넘어가는 첫 過程은 訓詁註釋의 段階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符合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論議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方法論以前의 徒勞인 듯하면서 그 以上の 進展에 重大한 役割을 擔當하게 된다.

一例로, 鄉歌의 訓詁註釋의 研究는 無涯가 마무리를 지은 셈이다. 無涯가 李朝語體系로써 考證을 삼았다 하여 新羅語體系의 再構論議가 提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現時點에서 不可能한 限 無涯의 것으로 滿足할 수 밖에 없다. 鄉歌의 研究는 無涯의 것이 바탕이 되어 다음 段階의 進展을 가져올 수 있었다. 文化史의 研究(金東旭), 民俗學의 研究(金烈圭), 綜合的 研究(黃浪江), 文藝學의 研究(鄭炳昱) 등이다.

마찬가지로, 國民文學 혹은 民族文學相互間의 影響과 源泉關係를 多角的으로 究明하는데 앞서야 할 문제는 翻譯에 대한 關心이 먼저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一國의 文學風土가 培養한 傳來의 慣習的 文學을 一次的인 것으로 본다면, 翻譯은 副次的인 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서로가 妥協하는 過程을 거치게 되며, 後者가 前者에 溶解되는 運動法則을 지닌다. 慣習的 文學의 秩序에 翻譯의 形式을 통한 異質的인 것이 衝激했을 때, 그것은 原則적으로 그 나라 傳統文學에 違背되는 存在로 把握되기 때문이다. 生硬한 外來的인 要素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것이 文學이라면, 翻譯은 慣習的 文學에 의하여 拒否되고 抵抗을 받는다. 그러나, 慣習的 文學이 끝내 孤高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한 나라의 文學이 體驗의 限界를 넓히고자 하는 實利的 動機와 結付되면서, 다시 異質的인 것의 受容이라고 하는 矛盾的 運動을

* 檀國大學校 助教授, 國文學

自招하게 된다.

모든 文化나 宗教의 流入過程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翻譯도 慣習의 文學과 妥協하는 過程에서 그 어떤 要素는 強化되거나 弱化되며, 어떤 意味가 새로이 賦與되기도 하는가 하면, 本來的인 意味가 變質 내지 滅殺되기도 한다.⁽¹⁾ 그것은 곧 慣習의인 文學圈에 適應할 수 있는 限界內에서의 變改를 意味하면서도 결코 根本的인 것까지를 讓步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慣習의 文學이 翻譯과의 妥協을 통해 受容할 수 있는 限界도 自明해진다.

이렇게 하여, 翻譯은 慣習의 文學의 生理 속에 溶解되고 攝取되면서 不知不識中 同質化되어 慣習의 文學의 一部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傳統文學形成에 參與하게 된다.

그러기에, 翻譯은 異質의인 것의 同質化를 돕는 媒介의 役割, 換言하면, 補助手段으로서 寄與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翻譯은 慣習의 文學圈에 대해 異質的인 것을 理解시키고 影響을 받아들이도록 周旋한다. 翻譯自體는 副次的인 것임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그것을 要求하고 必要로 하게 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叙上한 바와 같이, 文學一般에 있어서의 翻譯에 따르는 一次的인 論議를 前提하면서, 時調를 둘러싸고 있어 왔던 翻譯의 樣相과 그 各各의 意義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意圖다.

時調가 介入되어 이루어질 수 있었던 翻譯의 樣相은 大略 다음과 같이 類別할 수 있다.

- (1) 時調漢譯
- (2) 漢詩時調譯
- (3) 時調英譯
- (4) 時調日譯

이들은 지금까지 <存在>로써 머물러 있을 뿐으로 그 論議는 거의 零星한 狀態였다. 筆者는 上記 各項에 該當할 主要業績을 對象으로 그들 各各의 樣相에 대한 輪廓을 把握하는 일에 一考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質疑를 前提하고자 한다.

- (1) 時調가 介入된 翻譯의 各 樣相에는 文學一般의 翻譯이 지니는 意義가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가?
- (2) 따라서, 上記 樣相들이 出現함으로써 受信國의 文學에 얼마만한 影響을 끼칠 수 있었는가?

Ⅱ-1. 時調漢譯

Ⅱ-1.1 李朝一代의 時調漢譯에 관한 鳥瞰은 朴魯春教授에 의해 昭詳하며 거의 完璧한 整理가 完成되었다고 보여진다.⁽²⁾ 朴魯春教授는 「時調漢譯總覽」을 통해 原詞 524首에 대한 譯詞

(1) cf. 黃汎江, 新羅 佛教說話 研究, 東洋學 3輯, 檀國大, 1973, p. 166

(2) 朴魯春, 時調漢譯總覽, 국어국문학 62·63, 1973, pp. 375~428